

“황사病... 눈·목 아파요”

■ 전국이 후유증 몸살

‘은통 뻘썩고 숨 쉬기조차 어려워요...’ 최악의 황사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21일, 시민들은 하루종일 누런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황사 후유증’에 심한 몸살을 앓았다.

결막염, 기관지염 등 ‘황사병’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발길이 병원마다 이어졌고, 시내 중심가는 노점상 등이 흙바람을 피해 일찌감치 철시킨 데다 행인들의 발길마저 크게 줄어 썰렁한 분위기마저 연출했다. 반면 도시락 배달업체 등은 때 아닌 특수를 누려 명암이 엇갈리기도 했다.

농가에서는 이번 황사 진원지가 구제역이 빈발하는 내몽골지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제역 비상이 걸렸다.

병원·약국 표정

17, 18일에 이어 이날 또다시 자욱한 황사먼지가 몰려오자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에는 “눈이 쓰라리다”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줄줄이 만원을 이뤘다. 서울 관악구 L안과에도 평소보다 배 정도 많은 환자들이 찾았고, 강남구 S이비인후과에도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복재통을 이뤘다. 시내 약국에도 안약과 마스크, 식염수 등을 사려는 ‘황사환자’들이 평소의 3~4배에 달했다. 중구 저동 Y약국 약사 이진복씨는 “매년 봄 황사가 찾아올 때면 안약과 마스크가 평소보다 20~30% 더 팔려나가지만 올해는 품귀현상이 빚어질 정도”라고 말했다.

고통스런 시내·학교

서울 명동, 압구정동 등 중심가는 점심시간에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고, 외출하는 사람들도 마스크와 머플러로 얼굴을



황사가 전국을 뒤덮은 21일 서울 세종로에 나온 세모녀가 눈을 감고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걷고 있다. /박서강기자

실내서 체육수업·봄소풍 취소까지 행인 크게 줄고 노점상 서둘러 철시 도시락 배달·피부보호용품등 특수

퐁퐁 싸맨 채 종종걸음을 쳤다. 평소 노점상들로 붐비던 시장 등에도 노점상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손님들의 발길마저 끊기고 흙바람이 기승을 부리자 일찌감치 철시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오전에 등산을 계획했다가 흙바람에 질려 포기했다는 윤모(56)씨는 “이렇게 심한 황사는 처음 봤다.

갈수록 환경이 나빠지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초·중·고교는 황사가 극심해지자 이날 체육 등 실외수업을 실내수업으로 대체했다. 서울 강남구의 W유치원은 예정됐던 봄소풍을 취소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급기야 서울·경기·대전교육청 등이 유치원·초등학교에 휴업령

(22일)을 내리자 교사와 학부모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후에도 황사가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반사이익 업체들

반면 중국음식점과 도시락 배달업체 등에는 바깥출입을 꺼리는 직장인들의 배달 주문이 폭주했다. 피부보호 상품들도 ‘황사특수’를 만기했다. 서울 중구 L백화점은 황사가 시작된 이날 들어 화장품, 선글라스, 모자, 유모차덮개 등의 매출이 30% 정도 늘어났다. 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15% 정도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올해 황사는 훨씬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물 많이 마셔야”

■ 황사서 건강 지키려면

실내 적정습도 유지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각 병원에는 최악의 황사가 계속되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하거나 호흡기 질환에 걸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 전문가들은 황사피해를 줄이려면 물을 많이 마시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대처법을 권고하고 있다.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이선영(李善寧) 교수는 “황사가 발생하면 흡입되는 먼지의 양이 평소의 3배가 넘고 각종 금속 성분도 2~10배 가량 많아져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



이 악화할 수 있다”며 “외출을 삼가는 것이 최선이며 실내를 깨끗이 청소하고 적정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신철(辛澈) 교수는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으며 창문을 닫고 외출시 마스크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권고했다. 특히 알레르기성 천식환자는 증상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지 수축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기관지 확장제와 소염제를 휴대하는 게 좋다. 특히 어린이들은 감기 외에 홍역, 볼거리, 풍진 등에도 쉽게 걸릴 수 있는 만큼 이들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